

글로벌 악재에 북한 리스크까지 경제 ‘먹구름’

광주·전남 상공인들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해”

한국 경제가 중국 경기둔화와 유가하락에 북한 리스크 돌발변수가 불거지는 등 대내외 악재로 긴박한 가운데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장기적인 불황과 허약한 경제구조로 ‘불황병’을 달고 살아온 광주·전남 지역경제가 체감하는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14일 정부는 시장 점검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유사시 시행할 ‘컨틴전시 플랜’을 지속적으로 다듬고 있지만 지역 경제 주체들은 지역 서민 경제는 물론 대외 경제 불안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올해 들어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됐던 미국·중국 등 주요 2개국(G2) 리스크 가운데 먼저 중국의 경기 둔화가 충격을 줬다. 여기에 한국 경제는 최근 북한 리스크 변수라는 지정학적 위기까지 더해졌다.

저유가도 산유국을 비롯한 신흥국에 큰 타격을 입히며 한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다. 전체 수출 중 신흥국 비중이 58%에 달하는 한국은 조선·건설·플랜트 등 주력 수출분야에서 피해를 봤다. 실제로 올 2월 들어 지난 10월까지 수출액이 87억5200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2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상 최악인 14개월 연속 수출 감소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 경제가 처한 사면초가의 상황이 한층 악화됐음은 한동안 국제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가운데서도 비교적 선방하던 국내 금융시장 지표도 드러나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12일 전 거래일보다 39.24포인트(6.06%) 급락한 608.45로 마감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지역 경제의 동요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최근 ‘지역 경제활동 동향 보고’에서 “대외적으로는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주요국 통화정책의 비동조화 지속 등으로 국제자본 이동이 확대되면서 기초 경제여건이 취약한 지역경제가 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전면 가동 중단 조치로 (주)흥익산업과 개성부천공업(주) 등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던 지역 기업들의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일로에 처하자 정부 당국은 시장변동성 확대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 당일인 지난 7일이 경제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연데 이어 10일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가한 가운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에 닥친 대내외 악재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안별 ‘미니 부양책’보다는 중국 경기둔화와 유가하락, 북한발 리스크가 경제로 전이되는 걸 막아내는 거시적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10~2011년에도 유럽발 재정위기와 천안함 사태가 겹쳐 북한발 리스크가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줬다”며 “경제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북한 문제를 연착륙시킬 단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외환위기 때와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경기가 나쁘다고 말하는 상공인이 많다”며 “심각한 불경기에 위기상황인 만큼 지역 경제를 살리고 수출을 늘릴 수 있는 특단의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 문화원류를 찾아서 사면 발렌틴 ▶18면
 ▶ 3·1절 전국마라톤 풀·하프코스 안내 ▶20면

어등산 개발 ‘특급호텔’ 포기하나

광주시, 관광단지 조성사업 민자유치 방식으로 재추진

숙박시설 줄이고 상가시설 늘려 ... 사업자 이윤 보장 논란

광주시가 오는 7월께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민간사업자 공모(민자유치) 방식으로 재추진한다.

(관련기사 2면)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추진 전담팀(TF)이 1년여에 걸친 논의 결과 기존 숙박시설은 대폭 줄이고 상가시설을 늘리며 민간개발방식(민자유치)

을 주 내용으로 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교수와 공무원, 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의 이 보고서는 앞서 시행한 타당성 용역 결과를 거의 그대로 따랐다. 전담팀은 10년째 제자리 걸음인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시가 꾸렸다.

용역 결과 기존 사업계획은 696억원의 적자가 나는 등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

다. 대폭적인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 개발조건에서 사업자 이윤을 보장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뒀던 논란이 예상된다. 사업조건에서 특급호텔 건립 등 애초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현안의 대폭 축소가 예상된다.

광주시의 현안인 숙박시설은 14만5000여㎡에서 1만6000여㎡로 10분 1 수준으로 줄었다. 대신 상가시설은 2만4000여㎡에서 5배가량 늘린 13만여㎡로 조정했다. 특히 자금조달과 개발운영 등에서 우위를 가졌던 민간개발방식을 제안했다. 다만, 숙박시설은 용역 안에서는 비저니 스텝 호텔 수준으로 한정했지만 보고서는 폭넓게 인정했다. 콘도 등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광주시는 이달 중으로 전담팀을 사업추진 민간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5월까지 시민공청회와 토론회, 설명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유원지 개발방안 확정과 민간사업자 공모·선정을 거쳐 7월 이후 사업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의견을 들어 6월까지 유원지 개발방안을 확정하고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05년부터 3400억원을 들여 광산구 어등산 일대 터 273만㎡에 호텔과 콘도, 골프장, 예술센터, 전망대 등을 갖춘 어등산관광단지를 조성해 왔다. 하지만 자금난에 시달리던 사업자가 골프장만 먼저 짓고, 유원지 사업은 도의시해 ‘협약 이행’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10년째 골프장만... 광주시가 지난 2005년부터 조성해 나섰으나 사업자들의 경영난으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어등산관광단지 사업 현장. 애초 호텔과 콘도, 골프장, 예술센터, 전망대를 짓기로 했으나, 현재 골프장만 들어서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혁신 경쟁에 현역의원들 ‘좌불안석’

더민주·국민의당 공천 기준 엄격 적용 ... 신인보다 유리할 것 없어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국민의당이 혁신 공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관련기사 3·4·5면)

더민주는 지난 12일, 4·13 총선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과거처럼 현역 의원을 우선 시하는 심사 일정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이날 공직선거후보자추진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회의 직후, 김현태 공관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19대 총선 공천 때 현역을 중심으로 단순공천을 먼저 발표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비

판 여론이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현역을 우선시하는 심사방식, 일정이 아니라 현역과 신인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일정으로 간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이날 공천 심사자료에 필요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소위원회도 설치키로 했으며, 향후 구체적인 경선 일정과 방식, 전략공천위원회와의 협력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당도 지난 12일 총선 공천을 신청한 당사자뿐 아니라 친인척이 부정부패 혐

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공천자격을 유지할기로 결정했다. 또 신인·여성 등에 대해 10~20%의 가점을 부여하고, 경선 결과 최다 득표자의 득표수가 40%를 넘지 않으면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이 마련한 당규에 따르면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돼 당원권이 정지된 경우 ▲친인척 및 보좌진 등이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성범죄 등 국민 지탄을 받는 범죄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등을 제

시했다. 여기에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 ▲당의 가치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중대 사유 등도 공천 부적격 사유에 포함됐다.

하지만, 후보 본인이 아닌 친인척 및 보좌진 등이 부정부패로 유죄가 확정됐을 경우 공천에서 배제키로 한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는 등 과도한 정치적 연좌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친인척 및 보좌진 부정부패 조항에 대해 논란이 있는 만큼 시행 세칙을 통해 당규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 경선 방식으로는 ▲여론조사 ▲당원투표 ▲속의선거인단투표 ▲속의배심원단투표 등 4가지 방식을 명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깊이 있게 스며들어 찬란한 빛이 되다
 헤라 오일 세럼 매직 포뮬라

아름다움에 깊이를 더하세요.
 헤라만의 셀-바이오 모이스처™ 기술이 만들어 낸
 촉촉한 미세오일입자가 걸피부는 신뜻하게, 속피부는 촉촉하게-
 단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궁극의 보습을 선사합니다.
 느껴보세요, 오일과 세럼의 마법 같은 만남

HERA

● 유명백화점이나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080-023-5454(수신자요금부담) www.hera.co.kr